





3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교

제1절 _ 신아시아 협력외교

제2절 _ 유럽 지역외교

제3절 _ 중남미 지역외교

제4절 _ 아프리카·중동 지역외교

제5절 _ 지역 간(inter-regional) 외교

제1절 신아시아 협력외교

신아시아 협력외교는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 선진 기여 외교 등과 함께 우리 정부의 실용적 외교안보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신아시아 협력외교란, 한반도와 동북아 중심의 좁은 시야를 극복하고 아시아의 일원으로 세계화의 아시아를 주도함으로써 아시아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 정상외교 등을 통한 역내 주요 국가들과 양자관계 강화, 아시아를 관통하는 협력 모색 등이 있다. 신아시아 협력외교의 지역범위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서남아 태평양,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포함한다.

1. 동북아시아 지역

1) 한·일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을 공식 실무 방문하여 후쿠다 총리와 정상회담(4.21)을 하였다. 동 회담에서는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양국 관계, 북한 관계,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두 정상은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을 균형 있게 확대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담당 정부기관 간 정책대화를 신설하며, 호혜적 FTA 협상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래 지향적 관계 기반 강화를 위하여 양국의 젊은 세대 간의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 인식하고 취업관광 사증제도를 7,200명으로 늘리고, 2012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9년부터 3년간 1,500명 규모의 양국 대학생 간 상호 교류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8년 9월 아소 내각 출범 이후, 10월 베이징 ASEM 계기 한·일 정상회담(10.24), 12월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12.13), 2009년 1월 아소 총리의 방한 계기 한·일 정상회담(1.12) 등 다양한 계기에 양국 정상이 회동하며 상호 친분과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양국은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두 정상(2009.1.12, 서울)

2) 한·중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5월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향후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신설하고, 기존 외교·안보 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북핵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 교역 및 투자확대, 금융협력 강화 등 실질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베이징올림픽 폐막식 다음 날인 8월 25일 중국 국가주석으로서 처음으로 재임기간 중 두 번째 국민 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구체 추진 방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 정세 및



한·중 정상회담(2008.8.25, 서울)

지역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전략적 관계 내실화를 위해 먼저 양국 지도자들이 빈번하게 상호 방문하고, 다자회의 계기에도 수시로 양자 간 회동하기로 하였으며, 한·중 공동연구를 양국 전문 학자들 간 진행하고, 관련 결과를 양국 정부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3) 한·중·일 정상회의

2008년 12월 13일 3국내 최초의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었다. 1999년 이후 매년 ASEAN+3 계기에 개최되어온 3국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3국 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3국 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국제 금융 및 경제상황에 대한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금번에 개최된 3국 정상회의는 2004년부터 우리 측이 제의해왔던 것이 실현된 것이며, 동 회의 정례화 역시 우리 측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국제적 경제불안 상황에서 이루어진 3국 정상회의 계기 「국제 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및 한·일/한·중 각 300억 달러 통화스왑 합의는 금융위기 공동대처를 위한 3국의 협력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2. 동남아시아 지역

1) 한·베트남 정상회담

아시아·유럽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0월 24일 베이징에서 응웬 쩌응(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였다. 양 정상은 한·베트남 관계가 긴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고위인사 교류, 개발, 한·ASEAN 등 분야



한·베트남 정상회의(2008.10.24, 베이징)

에서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2)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1월 22일 리마에서 차기 APEC 의장국인 싱가포르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였다. 양국 정상은 세계 경제 및 양국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 금융위기에 대한 양국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 리셴룽 총리가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리셴룽 총리는 참석하겠다고 화답하였다.



1 한·싱가포르 정상회담(2008.11.22, 리마)

3)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2008년 2월 24-26일까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2월 26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캄보디아 증시 설립 지원사업 지속 추진과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지원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대테러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가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정상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훈센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캄보디아 경제고문직 역임 등을 화제로 정상 간 돈독한 친분을 재확인하였다.

4) 한·라오스 정상회담

부아손 부파반(Bouasone Bouphavanh) 라오스 총리는 2008년 6월 18-20일까지 한

승수 총리 초청으로 공식 방한,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후 한승수 총리와 회담을 하였다. 한 총리는 대라오스 우리 투자가 최근 에너지, 자원, 건설 분야 등 경제 발전 파급 효과가 큰 분야로 확대 중임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부아손 총리는 우리 관광객과 투자자들의 라오스 입국 편의 제공을 위해 우리 국민에 대해 15일 이하 단기비자를 면제키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한-라오스 직항노선 개설을 위해 항공협정 체결에 대한 교섭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은 라오스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대화조정국 역할을 수행하는 2009-2012년까지 다방면에서 한·ASEAN 관계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5)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G8 확대정상회의의 참석차 일본 도야코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9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양국 정상은 정상 간 상호 방문 및 각료급 교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공식 요청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긴밀한 경제협력이 상호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산림, 식량,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관계부처 장관 간 분야별 협의를 지속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방산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서남아 태평양 지역

1) 한·인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의 참석 계기에 2008년 7월 8일 삿포르에서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POSCO 인도 제철소



1 한·인도 정상회담(2008.7.8, 삿포르)

건설프로젝트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인도 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싱 총리는 동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되면 양국 경제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 협정의 조속 타결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2) 한·호주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0-11일까지 공식 실무 방한한 케빈 러드(Kevin Rudd) 호주 총리와 2008년 8월 11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하여 왔다고 평가하고, 양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확대하여 양국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경제·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안보·국방 등 분야로 확대하여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제1위 광물자원 교역·투자대상국인 호주와의 에너지·자원분야 협력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으며, 러드 총리는 LNG 분야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호주가 북핵문제 및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관심을 갖고 기여해온 데 대해 평가하였으며, 러드 총리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1 한·호주 정상회담(2008.8.11, 서울)

이명박 대통령은 G20 세계금융정상회의 계기에도 2008년 11월 15일 리더 호주 총리와 재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재발방지 원칙에 합의하고 보호무역주의 대두 방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데 공감하였다. 양국 정상은 앞으로 G20 회의 성과 이행을 위해 구체적 행동계획 수립이 긴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 공조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3)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15-17일간 공식 실무 방한한 헬렌 클라크(Helen Clark) 뉴질랜드 총리와 2008년 5월 16일 정상회담을 하였다. 양국 정상은 오랫동안 긴밀하게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21세기 동



한·뉴질랜드 정상회담(2008.5.16, 서울)

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향후 한·뉴질랜드 FTA 가능성을 논의하고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영화 공동제작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영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회담 개최 직후 양국 정상은 ●정부·의회 간 고위급 인사교류 활성화 ●경제·통상 협력강화 ●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다.

4. 중앙아시아 지역

1)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8월 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 계기에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medow)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1992년 양국 관계 수립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하였다.

금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활용하여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카스피해 해상광구 공동탐사 등 자원협력과 산업다변화, 항만 및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2008.8.8, 베이징)

정유공장 현대화,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투르크메니스탄 측과 공유해나갈 의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제1차 한-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공동 협력위원회를 10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6일 국민 방한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금년 들어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에 입각하여 양국 간 실질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특히 운송, 통신, 건설, 섬유,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해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에너지·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금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설립협정, 외교관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협정, 항공협정, 외교부 간 협력 MOU, 문화부 간 협력 MOU 등이 체결되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이 조성되었다.

2)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6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카리모프(Islam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재임 중 5번째 방한함으로써 2006년 3월 합의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한 한국과의 실질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수르길 가스전·가스 화학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협정서, 대우인터내셔널의 아랄해 해상광구 공동탐사 계약이 체결되는 등 에너지 자원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증진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또한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보이 공항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9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 계기에 카리모프 대통령과 올해 들어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2008.8.9, 베이징)

금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는 수르길 가스전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석유화학, 정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대한항공이 참여하고 있는 나보이 공항 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양국 간 협력 사업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초청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였다.

3)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8월 9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 계기에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양국 간 에너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으며, 특히 양국 간 신규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공동개발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자고 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산업다변화를 통한 카자흐스탄의 균형적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자원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석유화학, IT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하였다.

금번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정상 간 만남



|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2008.8.9, 베이징)

으로써,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과의 다면적 협력관계를 한층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4) 국무총리 중앙아 순방

한승수 국무총리는 첫 순방 외교지로 중앙아시아를 선정하고 5월 11-1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을 방문하였다. 이번 순방에는 국내 주요 기업인 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여 방문국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방문국 정상 예방 및 주요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에너지·자원, SOC·건설,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금번 순방을 통해서 카자흐스탄 잠빌 해상광구 지분양도 계약 체결, 우즈베크 우준쿠이 가스전 및 나망간-추스트 광구 공동탐사 계약 체결, 카자흐 및 우즈베크과의 우라늄 장기 도입 계약 체결, 투르크메니스탄 카스피해 해상광구 공동탐사 참여 방안 논의, 아제르바이잔 광물자원 공동탐사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의 교통관리 시스템구축, 투르크멘 바쉬 항만 현대화, 카자흐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수주 지원 등 SOC·건설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였다. 금번 순방 결과로서 제조업·SOC 분야 총 14건, 에너지·자원분야 총 6건의 MOU가 체결되었고, 특히 아제르바이잔 방문 시에는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비자 면제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는 등 중앙아 각국과의 실질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2절 유럽 지역외교

유럽은 우리 외교의 5대 축이자 제2의 교역상대로, 우리 정부는 2008년 한 해 동안 유럽지역 국가들과의 고위급 인사 교류 활성화, 경제·통상·에너지협력 강화, 각종 협의회를 통한 실질협력 증진, ASEM, CICA 등 지역협력체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한·유럽 간 미래 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 정상외교

1) 유럽국가 정상방한

●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9월 10-11일까지 국빈 방한한 바세스쿠(Traian Basescu)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9.11)을 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유럽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1990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발전을 평가하는 한편,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기존의 '우호협력 동반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



| 한·루마니아 정상회담(2008.9.10-11, 서울)

아울러 양국 간 경제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루마니아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에너지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 투자 진출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루마니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흑해 지역 정세, 에너지안보 및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핀란드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6월 5일 핀에어(Finnair)사의 한·핀란드 직항노선 취항을 계기로 공식 실무 방한한 반하넨(Matti Taneli Vanhanen) 핀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분야 경제 교류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이 고령화 및 교육정책 등 주요 국정 이슈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간 정부 부처, 관련 기관, 민간 부문에서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에너지 자원의교와 관련, 양국 정상은 에너지 효율 제고, 대체 에너지·친환경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EU FTA 협상 타결, 환경 관련 기술 협력, 국제 분쟁 지역에서의 기여, 대외 원조의 증액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기여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주요 국제회의 계기 정상회담

● 한·덴마크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4일 제7차 ASEM 정상회의의 참석 계기에 라스무슨(Anders Fogh Rasmussen) 덴마크 총리와 양자회담을 열었다.

양국 정상은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분야, 한-EU FTA 및 세계 금융위기 극복에 대한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럽의 대표적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국가인 덴마크와의 동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라스무슨 총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관심을 표하고, 2009년 코펜하겐 개최 예정인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과 라스무슨 총리는 세계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금년 내 한-EU FTA 타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한·폴란드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4일 제7차 ASEM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발전 평가와 함께 향후 실질협력 증진 및 문화교류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폴란드의 에너지·인프라(SOC) 건설 및 군사장비 조달사업 등의 분야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와 함께 폴란드 진출 우리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의 활동을 평가하고, 우수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측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국과 폴란드는 1989년 수교 이래 활발한 고위급 인사 교류를 지속하여왔으며, 금번 회담은 향후 양국관계에 있어 상호 호혜적 실질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폴란드 정상회담(2008.10.24, 베이징)

● 한·프랑스(EU)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5일 제7차 ASEM 정상회의 계기에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EU 의장국인 프랑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동 회담에는 바호주(Barroso) EU 집행위원장이 동석했다.

이 대통령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동 방문이 양국 관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과 아시아가 단결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보완에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해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과도 사전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이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한다고



한·EU 정상회담(2008.10.25, 베이징)

언급한데 대해 바호주 위원장은 한-EU FTA 협상과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 협상이 하나의 패키지이며 이는 한-EU 관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유럽국가들이 설득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EU는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UN 안보리에서의 북한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2. 고위급 외교

1) 총리급 외교

한승수 국무총리는 제63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9월 25일 발케네데(Balkenede)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및 물류협력 증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양국 총리는 미래의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친환경 기술협력 증진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 총리는 한국이 부산, 광양 등 우수한 항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선진화된 물류시설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희망하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2월 1-3일간 터키를 공식 방문하여 에드로안(Edrogan) 터키 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지역정세, 금융위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한 총리는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터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전자정부, WiBro/DMB 등 IT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자고 하였다. 양국 총리는 한국과 터키가 57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금번 한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차원의 양국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하였다.

2) 장관급 외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RF 참석 계기에 7월 24일 라마 야데(Rama Yade) 프랑스 인권외무담당장관과 한-EU Troika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과 한-EU 기본협력협정의 개정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으며, 다자무대에서 EU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유 장관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ASEM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0월 25일 본드라(Alexander Vondra) 체코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한·EU 관계 발전, 양국의 통상·투자 증진 및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체코 정부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같은 날 쿠비쉬(Jan Kubis)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고 우리의 자동차, 가전제품 투자 진출 등 무역·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긴밀해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우리 진출 기업의 활동 여건 개선 등 향후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밀리반드(David Miliband) 영국 외교장관과도 회담을 하고, 한·EU FTA, 북한 핵문제, 국제 금융위기 대책, 기후변화 등 국제 이슈에서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국제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상호 정보 교환 및 국제무대에서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향후 국제 경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유명환 장관은 ASEM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국을 방문한 막심 페어하겐(Maxime Verhagen)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10월 29일 한·네덜란드 외교장관 회담 및 실무 오찬을 갖고, 양국 간 주요 외교 현안 및 향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한·EU FTA 및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하기로 하였으며, 원자력 및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칼핀(Ivailo Kalfin) 불가리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10월 29-31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여 한승수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외교장관 회담, 유명환 외교장관 주최 공식 오찬, DMZ 방문 등의 일정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협정 및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였다.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고위급 인사 교류 강화, 교역 및 투자 확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양국 현안 및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은 에너지, 정보통신,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분야에 있어 협력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지역협력 외교

외교통상부는 유럽 지역 국가들과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지역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금융위기, 기후변화, 안보문제 등

당면한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유럽 국가들과 경제통상, 문화, 에너지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1)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우리나라는 1994년 이래로 OSCE의 아시아협력동반자국(Asian Partners for Co-operation)의 일원으로 참여해왔으며, 그간 OSCE 정상회의 각료이사회 등에 적극 참석하여 OSCE가 구축한 다자안보협력의 동북아 지역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등에 대해 유럽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해왔다.

지난 4월에는 드브리상보(Marc Perrin de Brichambaut)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총장이 28-29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예방, 제2차관 오찬 및 유럽국장, 남아시아대양주국장,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면담을 하고,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헬싱키 프로세스 및 OSCE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는 등 유럽과 동북아 두 지역 간 안보의 상호 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OSCE와 유럽의 다자안보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와의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12월 3-5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16차 OSCE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대OSCE 기여 활동, 한반도 정세 등을 소개하고 OSCE 경험의 동북아 적용 가능성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을 환기하였다.

2)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우리나라는 인권과 민주주의, 내무사법분야에서 유럽 국가 간의 협력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평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유럽평의회와 형사사법공조협약과 범죄인인도협약에 대한 가입을 추진하여 2009년 상반기에는 두 협약에 대한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부터 유럽평의회에 대한 옵서버 가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제3절 중남미 지역외교

중남미 지역은 총 33개국, 인구 5.7억 명, GDP 3.3조 달러, 교역규모 1.5조 달러의 신흥 유망 시장으로 최근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 시장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2008년 우리의 대중남미 흑자는 195억 달러로 이미 중국(145억 달러), 미국(80억 달러)을 상회하고 있으며 자원·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자원부국이자 우리의 주요 흑자 시장인 중남미와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위급 인사 교류, 경제·통상·자원 협력 강화, 중남미 지역 기구와의 협력 증진 등의 실용외교를 전개하여 중남미 각국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1. 정상외교

1) 이명박 대통령 남미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2-23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 16차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브라질(11.19, 공식 방문) 및 페루(11.21, 국민 방문)를 방문하여 룰라(Luiz Inácio Lula da



| 한·브라질 정상회담(2008.11.19, 브라질리아)

Silva) 브라질 대통령 및 가르시아(Alan Garcia)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동 순방 행사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남미 진출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자원·에너지 외교를 전개하였다.

한·브라질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한·브라질 경제·통상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의 브라질 주요 국책사업 참여 확대 방안과 바이오 에탄올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이 G20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세계 금융질서 개편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 한·페루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간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페루 진출 지원을 요청하였고,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약속하였다.

2) 남미국가 정상 방한

루고(Fernando Lugo)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기 위해 6월 1-5일까지 방한하여 한·파라과이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농업, IT, 자원 등 양국 간 제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파라과이 정상회담(2008.6.1, 서울)

바스게스(Tabaré Vazquez) 우루과이 대통령은 8월 30일-9월 1일까지 우루과이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방한하여 우리 기업의 우루과이 진출 확대방안과 양국간 농림·수산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3) 주요 국제회의 계기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7월 8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칼 데론(Felipe de Jesus Calderón Hinojosa)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멕시코 FTA 추진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기후변화, 세계 경제위기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2-23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16차 APEC 정상회의의 참석 계기에 우리베(Alvaro Uribe) 콜롬비아 대통령 및 바첼렛(Michelle Bachelet Jeria) 칠레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하였다.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상호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콜롬비아 FTA를 체결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원·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바첼렛 칠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후 통상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 고위급 외교

1) 총리급 외교

한승수 국무총리는 5월 25-27일까지 방한한 에스빠다(Rafael Espada) 과테말라 부통령과 면담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 투자, 방산협력 등 실질 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과테말라의 치안불안과 관련, 과테말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우리 교포들에 대한 과테말라 정부의 배려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또한 한 국무총리는 제63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9월 23일 뉴욕에서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 및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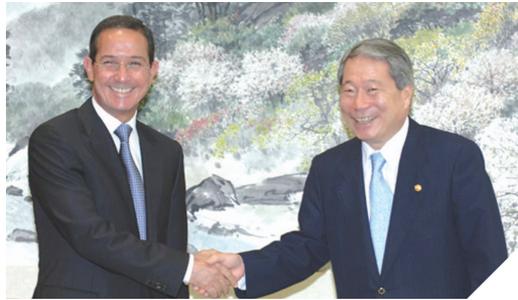
우리베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한 국무총리는 콜롬비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콜롬비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베 대통령은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대콜롬비아 투자가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과 양자회담에서 한 국무총리는 루고 대통령의 취임(8.15)을 축하하고 한·파라과이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루고 대통령은 우리의 대파라과이 개발협력 확대 등의 조치에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 기업의 파라과이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 장관급 외교

후쎬휘(Dilma Vana Rousseff) 브라질 정무장관은 4월 21-22일까지 방한하여 한승수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등과 회담을 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브라질 고속철 참여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라우호(Fernando Araújo) 콜롬비아 외교장관은 7월 13-15일까지 공식 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외교장관 회담, 지식경제부장관 면담 등의 일정을 보냈다. 아라우호 장관은 이 대통령 예방 시 이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을 초청하는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양국 간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자원·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등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콜롬비아 외교장관 회담(2008.7-14, 서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일 바스께스 우루과이 대통령을 수행하여 방한한 아스토리(Danilo Astori) 우루과이 재정경제부장관과 면담을 하여 우루과이산 신선 쇠고기 수입문제, 우리 기업의 우루과이 투자진출 등 양국 간 통상·투자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9월 23일에 개최된 제63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타이아나(Jorge Enrique Taiana) 아르헨티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어 우리 기업의 아르헨티나 자원·인프라 분야 진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 지역협력 외교

외교통상부는 역내 통합 노력이 활발한 중남미 지역에서 각종 지역기구와 경제·통상·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

1)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창설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 Forum for East Asia and Latin America Cooperation)의 3개 작업반의 하나인 경제사회작업반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양 지역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출범 초기인 FEALAC이 상설 사무실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감안, 우

리의 주도로 FEALAC의 사이버 사무국으로 기능할 공식 웹사이트(www.fealac.org)를 개설함으로써 회원국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11월 25-26일까지 에콰도르에서 개최된 제6차 FEALAC 경제사회

작업반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양 지역의 관광교류 증진을 위한 관광 소그룹 설치 및 공식 웹사이트의 기능강화를 합의하는 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함께 2008년 5월 22-23일까지 창원에서 FEALAC 지방자치단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국 지방자치단체장 및 전문 관료를 초청하여 회원국 간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교류·협약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FEALAC 공식로고

2) 제8차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는 1996년 8월 설치된 우리나라와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8개 회원국 간 연례 각료급 협의체로서 2008년에는 제8차 회의가 6월 11일 엘살바도르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참석하였으며, SICA 측에서는 각 회원국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여 한·중미 간 경제·통상 투자 및 개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3) 제32차 ECLAC 총회 참석 및 협력사업 수행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UN ECLAC: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는 UN 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중남미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1948년에 창설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ECLAC 정회원 가입 이후 처음으로 6월 9-13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제32차 ECLAC 총회에 참석하여, 중남미에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소개하고 양 지역 간 우호관계 증진 및 경제협력 확대 발판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또한 ECLAC과 진행하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총 20만 달러를 지원하여 '중남미 지역 물류 및 인프라 연결을 통한 아태 지역과의 관계 제고 가능성' 및 '동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 시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 관련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4) 한·ACS 간 협력 약정 체결 및 협력사업 수행

1995년에 창설된 카리브국가연합(ACS: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는 카리브 지역 협력 및 통합 과정을 촉진하고 역내 환경 보전 관련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동 기구의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008년에는 카리브 지역 주재 우리 공관 철수로 인한 외교력 감소를 보완하고, 카리브 연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ACS 간 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한·ACS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9월에 개최된 제9차 카리브 무역증진 기구 포럼에 우리 섬유 및 무역업계 전문가를 파견하고 12월에는 카리브 기후변화 세미나 개최를 지원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에너지 확보 노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남미 지역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 공급원이다. 중남미는 석유의 경우 세계 매장량의 10.6%, 가스 4.7%, 동 43.8%, 은 39%, 철 26.3% 등 각종 천혜의 자원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 우리의 중요한 자원·에너지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중남미와의 실질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중남미 경제협력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 중남미 자원협력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꾸준히 펼쳐 우리 기업의 중남미 자원개발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1) 한·중남미 경제협력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

외교통상부는 9월 9-10일까지 한·중남미 간 최초의 정부 간 다자협의체인 '한·중남미 경제협력 및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한국과 중남미 간 통상·투자,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포럼의 연례화에 합의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 한·중남미 경제협력 포럼(2008.9.9-10, 서울)

'한·중남미 경제협력 및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콜롬비아 광물 에너지 장관 및 석유청장, 에콰도르 전략분야조정장관, 아르헨티나 광업차관, 파나마 통상산업부 대외차관 등 중남미 5개국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고위급 인사와 우리 기업 간 개별 면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에너지 협력외교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동 포럼을 계기로 SK에너지 및 한국석유공사가 각각 2개의 콜롬비아 유전광구를 낙찰하였으며, SK건설은 에콰도르 에스메랄라스 정유소 개보수 및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에 있어서 구체적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2) 중남미자원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외교통상부는 2006년 주아르헨티나 대사관에 설치된 이래 2년간 한시 운영되어온 남미 자원협력센터를 2008년 4월 본부로 이관하여 중남미자원협력센터로 확대 개소하였다. 중남미자원협력센터는 홈페이지(energia.mofat.go.kr)를 통해 중남미 에너지자원 관련 최신 정보를 게재하고, 동 웹사이트 내 '자원 핫라인' 코너를 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중남미 자원분야 진출을 1대1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 센터는 제2차 한·아르헨티나 자원협력위원회(9.9) 및 제1차 한·에콰도르 자원협력위원회(11.17) 개최를 지원하고, 에너지·자원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중남미와의 에너지 외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우리 재외공관의 중남미자원 실태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중남미 에너지 자원보고서 등 각종 관련 자료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3) 한·중남미 국가간 FTA 지원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한·칠레 FTA가 발효 4년째인 2008년에 양국 간 교역액이 72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FTA가 발효되기 직전 해인 2003년의 16억 달러에 비하여 약 5배 증가한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의 교역 증진을 위해 2008년에도 제2차 한·멕시코 FTA 협상을 개최하였고, 페루와는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콜롬비아와도 FTA 공동연구 착수에 합의하였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FTA 추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다.

제4절 아프리카·중동 지역외교

1. 정상외교

1) 한·르완다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5월 31일 르완다 정상으로는 처음 한국을 방문한 폴 카가미(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이 대통령은 르완다 국민들이 1994년 대학살의 국가적 시련을 극복하고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카가미 대통령의 지도력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르완다 국가 발전에 한국이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카가미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르완다 인적자원 개발에 우리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IT 산업, 관광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1 한·르완다 정상회담(2008.5.31, 서울)

2) 한·알제리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8월 7-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계기에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알제리 대통령과 8월 8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알제리 양자 관계 현안을 비롯, 남북한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양국은 기존의 밀접한 정치적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알제리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로 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 한·요르단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빈 방한한 압둘라 2세(Abdullah II) 요르단 국왕과 12월 1일 정상회담을 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요르단이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인 홍해-사해 대수로 사업(원전건설, 대수로 건설, 담수화 플랜트 건설 패키지 사업) 협력등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한·요르단 원자력 협력협정과 홍해-사해 대수로 사업 추진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4)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 : Korea-Arab Society) 창립 국제회의 계기 정상회담

KAS 창립 국제회의 계기에 수단, 지부티 대통령을 비롯, 아랍 각국의 각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방한하였다. 동 회의 참석자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아랍지역 간 상호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동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였으며, 고위급 인사들도 대통령·총리 예방 및 국내 유관 인사 면담을 통해 양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고 관계를 증진하는 기반을 다졌다.

● 한·수단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5-27일까지 개최된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창립 국제회의 참석차 실무 방한한 엘-바시르(Omar Hassan Ahmed El-Bashir) 수단 대통령과 5월 26일 정상회담을 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수단



한·수단 정상회담(2008.5.26, 서울)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방안 및 경제협력, 수단 내 에너지 개발, 인프라·건설 사업 진출 방안, 개발경험 공유방안,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방안 등 양국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측은 수단 내 에너지, 인프라·건설사업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수단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고, 양국 간 농업분야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수단 측은 우리의 무상원조에 사의를 표하고, 수단이 내전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원 증설 등 인적자원 개발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지부티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5-27일까지 개최된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창립 국제회의의 참석차 실무 방한한 이스마일 오마르 구엘레(Ismail Omar Guelleh) 지부티 대통령과 5월 26일 정상회담을 하였다. 동 대통령의 방문은 지부티 국가원수로는 최초 방한이었으며, 동 정상회담에서는 우리의 지부티 무상원조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2. 고위급 외교

1) 국무총리 중동순방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11월 29일 카타르 도하개발재원회의 개막식 참석 계기에 카타르(11월 27-29일), 쿠웨이트(11월 30일-12월 1일) 등 중동 지역 2개국을 순방, 각국 정상들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카타르 방문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11월 27-29일까지 카타르를 방문, 하마드(Hamad bin Khalifa Al-Thani) 카타르 국왕 및 하마드(Hamad bin Jassim Al-Thani) 총리와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은 한국과 카타르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기존의 에너지, 건설·플랜트 분야에서의 협력을 넘어 조선, IT, 교육, 방산, 보건 등 제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승수 총리 카타르 국왕 예방(2008.11.29, 카타르)

● 쿠웨이트 방문

한승수 총리는 2008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쿠웨이트를 공식 방문, 사바 (Al-Ahmad Al-Jaber Al-Sabah) 쿠웨이트 국왕 예방 및 나세르(Nasser Al-Mohammed Al-Ahmad Al-Sabah) 총리와 면담(11.30)하였다. 한 총리는 에너지, 건설·플랜트, 조선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쿠웨이트 측의 배려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양국은 방산·교육·IT·문화 등으로 협력 외연이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품전시회 개최, 사절단 상호 방문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승수 총리는 2008년 11월 30일 쿠웨이트 내 우리 기업 공사현장을 시찰하고 쿠웨이트에 주둔 중인 다یمان 부대 장병들을 접견하여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한승수 총리 쿠웨이트 국왕 예방(2008.11.30, 쿠웨이트)

2) 쿠웨이트 총리 방한

한승수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7월 29-31일까지 방한한 나세르 쿠웨이트 총리는 7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이에 앞서 양국총리는 7월 30일 회담을 열고 에너지·자원, 건설·플랜트·방산·교육·IT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체육·환경·양자 협력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지역협력 외교

1)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 : Korea-Arab Society) 창립

그동안 우리나라와 아랍 지역 국가들은 국내외에서 가진 여러 양자 및 다자 교류 계기에 양 지역 간 단편적인 경제협력에 치중되어온 관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왔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 지역 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여 문화, 예술, 종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Korea-Arab Society)를 창립하였다. KAS는 우리나라와 아랍연맹 22개국 정

부 및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2008년 5월 25-26일 창립 국제회의, 2008년 6월 30일 창설 이사회를 거쳐 2008년 1일 공식 출범하였다. KAS는 공식 출범 이전부터 활동을 시작, 2008년 5월 7일부터 7월 11일 까지 서울에서 아랍문화축전(Arab Cultural Festival)을 개최하였다. 아



한·아랍 소사이어티 만찬(2008.5.26, 서울)

울러 2008년 10월 17-28일까지 아랍 11개국에서 한·아랍 우호친선 특급 카라반(Korea-Arab Friendship Express Caravan) 행사를 열었으며, 2008년 11월 18일 서울에서 한·아랍 문학포럼을 개최하였다. KAS가 개최한 행사는 양 지역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한·아랍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 한·아프리카 포럼 회기간 회의

2008년도 한·아프리카 포럼 회기간 회의가 외교통상부와 모로코 모하메드5세 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공동 주최로 10월 16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대표단, 아프리카 측 정부, 학계, 경제계 인사, 모로코 주재 외교단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금번 회기간 회의에서 양측 관계자들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 지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양측 참석자들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단순한 교역 상대가 아닌 전방위적 협력대상국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㉞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창립 국제회의

한·아랍소사이어티 창설을 위한 국제회의가 5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국제회의에는 우리나라와 아랍연맹 22개국 정상, 각료, 왕실 인사, 기업인, 학자 등 여러 분야의 유력인사 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본회의에서 KAS 정관 및 회의 결과 문서 채택을 통해 KAS 창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단 창설을 위한 공동 출연기금도 조성하는 등 KAS 창설이 가시화되었다. 참석자들은 본회의에 이어 개최된 “한·아랍 문화포럼”과 “한·아랍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아랍 간 문화 교류 확대와 민간 기업 간 협력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양 지역 간 교류 및 협력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였다. 참석자들은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한·아랍소사이어티 창설과정을 주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㉞ 아랍문화 축전

2008년 5월 26일 한·아랍소사이어티 창설 국제회의의 계기에 아랍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 및 이해 제고를 위해 5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아랍문화축전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에는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사우디,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쿠웨이트 등 아랍 8개국이 참가하여 전통무용, 음악, 그림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였다.

㉞ 한·아랍 우호친선 특급 카라반

한·아랍 우호친선 특급 카라반 행사는 한·아랍소사이어티의 창립을 기념하고 아랍 지역에서 한국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동 카라반 행사는 10월 17~28일까지 한국과 아랍 양측의 정부기관 및 문화·예술 단체의 고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알제리, 카타르 등 아랍 11개국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카라반 행사는 한국요리축제, 비보이·사물놀이 퓨전 공연, 한글·서예 전시회, 태권도 시범 등 문화행사와 병행하여 5개국에서 무역 투자 상담회가 열려 대중동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특급 카라반 문화행사(2008.5.24, UAE)

제5절 지역 간(inter-regional) 외교

● 제16차 리마 APEC 정상회의

제16차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가 2008년 11월 22-23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21개 회원국 정상¹³⁾이 참석한 가운데,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페루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정상들은 “아·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A New Commitment to Asia-Pacific Development)”이라는 주제하에 세계 금융위기, 식량·에너지 안보,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지역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기후변화, 인간 안보(재난 대응 및 대테러 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해 논의하였다. 동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APEC 회원국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정상들은 정상선언문 발표 이외에 별도의 「세계 경제에 관한 리마 APEC 정상 성명(Lima APEC Leaders' Statement on the Global Economy)」을 채택하여 G20 세계금융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지지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향후 12개월간 현 수준 이상의 무역 장벽 도입을 자제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특히 무역장벽 도입 자제 약속은 우리나라의 제의로 반영된 것이다.

두 번째 성과로서 정상들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보고르 목표(Bogor Goal)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경제통합(REI) 논의를 진전시켰

¹³⁾ 2008 APEC 정상회의에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부총리가, 홍콩의 경우 홍콩특구 행정수반이, 대만의 경우 련잔 前 부총통이 참석하였고, 그 외의 18개 회원국은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다. 또한 정상들은 2008년 REI Progress Report를 평가하고,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추가 분석을 2009년 과제로 채택하였으며, 2010년까지 역내 거래 비용 5% 추가 감축을 위한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II)의 이행 프로세스와 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원활화 행동계획(IFAP)을 승인하였다.

셋째, 정상들은 현 금융위기하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및 청정개발에 관한 시드니 APEC 정상선언」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서 공평하고 효과적인 2012년 이후의 국제기후변화 체제(Post-2012) 수립을 위한 논의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의 합의 도출에 적극 협력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나아가 기후변화 완화와 이에 대한 적응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증대해나감과 동시에 능력 배양을 함께 추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예로 온실가스 저배출 기술 개발과 개도국에 대한 동 기술 이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정상들은 2007년 시드니 정상선언에 따라 개최된 APEC 구조개혁 장관회의(2008년 8월, 멜버른)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동 장관회의에서는 「규제개혁 모범사례 지침서」를 채택하였고, 구조개혁 진전사항에 관한 자발적 혹은 자체 검토 프로세스를 개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구조개혁에 관한 능력 배양 프로그램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동 구조개혁 논의는 2009년 APEC 회의의 주된 의제의 하나로서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정상들은 APEC의 무역·투자 아젠다의 필수 전제로서 인간 안보 강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역내 재난 대응 활동을 조정하고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구체적인 재난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재난위협경감, 긴급사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APEC 전략」, 「재난 대응과 협력에 관한 APEC 원칙」, 「재난관리 능력배양 수요점검」을 채택하였다.

한편 금번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APEC CEO Summit’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연설을 통하여 최근의 세계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위기 대응의 한 해법으로서 1997년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소개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제적 부상이 무엇보다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면서,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의 지속적 추진

에 적극 참가하여, 이 지역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 안보·경제·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2월 3일 우리나라와 ASEAN 10개국 간 체결한 「한·ASEAN 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가 발효되어, 한국과 ASEAN 간 투자, 교역, 관광 및 문화교류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이 될 한·ASEAN 센터 설립이 실현되었으며, 또한 12월에는 김호영 주인도네시아대사가 우리나라의 초임 ASEAN 대사로 임명되는 등 2008년에는 한·ASEAN 관계가 제도화되고 공고화되는 큰 진전이 있었다.



1 제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2008.7.22, 싱가포르)

7월 22일 싱가포르에서 ASEAN+3 외교장관회의와 EAS 비공식 외교장관회의가 각각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ASEAN+3 장관들은 2007년 제11차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식량·에너지 안보, 재난구호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있어 ASEAN+3 차원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 「ASEAN+3 협력기금」의 세부정관(TOR)을 합의함으로써 향후 ASEAN+3 협력의 주요 활동이 될 기금이 설립되었으며, 6자 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

14) 1997년 12월 ASEAN이 창설 30주년 계기 비공식 정상회의에 최초로 한·중·일 정상을 초청한 이후 정례화된 ASEAN+3 체제는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20개 분야의 정부 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역대 가장 진전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15) 기존 ASEAN+3 회원국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총 16개국)하여 2005년 11월 출범, 역내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정상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책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한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12월 16-17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 예정이던 2008년도 ASEAN 관련 정상 회의⁶⁾는 ASEAN 의장국인 태국 측의 국내 사정으로 개최가 2009년으로 연기되었다.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199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 간 정치·안보 분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를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지역안보협의체로서, ASEAN 10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대화상대국 10개국, 그리고 북한을 포함 기타회원국 7개국 등 모두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2008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5차 ARF 외교장관회의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가 있었다. 또한 우리 측은 동 장관회의에서 승인된 사이버 보안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주도, ARF 대테러·초국적 범죄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출범 15년을 맞는 ARF는 현재 더욱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제도개혁과 협력영역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바, 우리는 2008/2009 회기년도 회기간회의(Intersessional Support Group Meeting)의 공동의장국을 싱가포르와 함께 수임, ARF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10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차 회기간회의에 이어 2009년 상반기 중 개최되는 2차 회기간회의는 한국에서 우리 측 주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 아시아협력대화(ACD)

유명환 장관은 2008년 10월 1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ACD 회원국 대표들은 ACD의 진전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회의 결과를 반영한 아스타나 선언문(Astana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유명환 장관은 전임 ACD 의장국 수석대표 자격으로 ACD의 운영 목표, 사무국 설치, 재원 조달, Track II 참여, 문화협력, 회원국 가입 문제 등과 관련하여 ACD의 미래 발전

⁶⁾ ASEAN 관련 정상회의는 이틀간에 걸쳐 ASEAN+3 정상회의, 한-ASEAN 정상회의, ASEAN+3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포함하는 EAS 등의 회의를 연쇄 개최하는 독특한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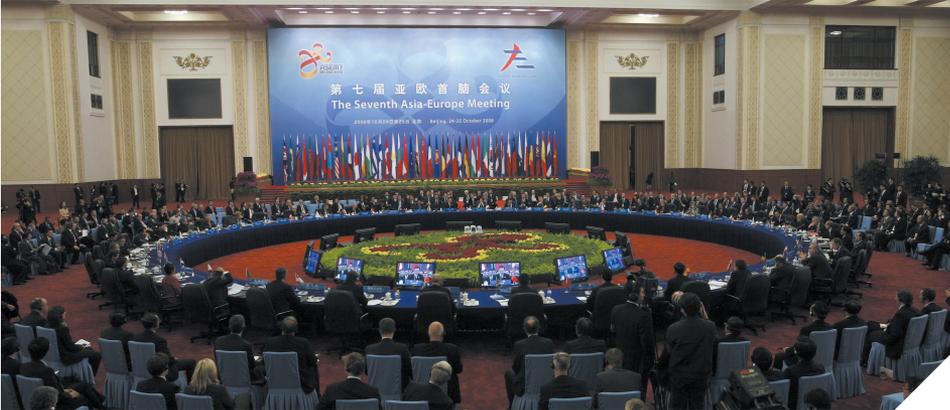
제7차 아시아협력대화 외교장관회의(2008.10.16, 아스타나)

방향을 담은 ACD 고위급 스터디 그룹의 최종 권고안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ACD 회원국들은 2007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ACD 외교장관회의의 성과 및 고위급 스터디 그룹을 통한 ACD의 미래 발전 방향 제시 등 전임 의장국으로서 ACD 발전을 위한 우리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제7차 ASEM 정상회의가 10월 24-2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유럽의 43개 회원국 정상들과 EU 집행위, ASEAN 사무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 와중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제 금융문제가 중심 의제로 부상하여 1차 본회의 의제로 ‘국제 경제 및 금융상황’이 추가되었으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지지하는 정상성명이 채택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공동번영을 향한 비전과 행동(Vision and Action : Towards a Win-Win Solution)’이라는 주제하에 국제사회 금융위기 극복을 비롯한 식량안보, 재난 예방 및 대응,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지속가능 개발과 문명·문화 간 대화의 심화 등을 의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베이징 선언(Beijin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및 ‘국제 금융상황에 대한 아셈 성명(Statement of the Seventh Asia-Europe Meeting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ituation)’ 등 3개의 결과 문서가 채택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개막식 전 개최된 ASEAN+3(한·중·일)



| 제7차 ASEM 정상회의(2008.10.25, 베이징)

조찬회의에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정상회의 1차 본회의의 연설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와 신흥 경제국의 역할 제고를 강조하는 등 금융위기 극복 방안에 관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우리 입장은 2008년 11월 15일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미국 워싱턴의 G20 정상회의의 성과에도 반영되어, 세계 금융질서 관련 논의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공식 업무 오찬을 통해 6자회담의 성과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로운 달성과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동 기회를 활용하여 프랑스, 일본,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 등 정상회의의 참가 정상들과 정상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는 아시아 16개국, EU 27개국 정상들과 ASEAN 사무총장 및 EU 집행위원장이 2년에 한 번 여는 정상회의의 장(forum)을 의미한다. 1990년대 탈냉전과 세계화가 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에 주목, 1994년 싱가포르가 양 대륙 간 회의체 창설을 제의하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의부터 참가한 ASEM 창설 회원국으로서, 2000년 제3차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2005~2006년까지 동북아 조정국으로 활동하는 등 ASEM 프로세스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왔다. 현재 ASEM은 전 세계 인구의 59%, 총생산(GDP)의 51%, 무역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아시아·유럽 간 긴밀한 협력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회담을 하고, 금융위기 극복,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 및 기타 양국 간 경제협력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제7차 ASEM 정상회의는 국제 금융위기 극복과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정세 이외에도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식량위기, 재난예방 및 대응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긴밀히 논의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밝힌 중요한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우리 정부는 6월 9-11일까지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고위관리회의(SOC: Senior Officials Committee) 및 특별실무그룹(SWG: Special Working Group)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는 CICA 18개 회원국 4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경제 및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CICA 신뢰구축 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실현 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2008년 8월 25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제3차 CICA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새로운 도전과 위협(테러, 마약), 에너지 안보, IT, 농업 등의 분야에서 회원국 간 신뢰구축조치(CBM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이행계획이 합의되었으며, 우리 측에서는 신각수 외교부 제2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 현황 및 CICA 발전 평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신 차관은 또한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사무국 규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외교장관회의의 주요 문서를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금년도 CICA 프로세스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CICA 내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지역안보뿐만 아니라 에너지협력,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㉔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는 지난 1992년 카자흐스탄의 주도하에, 아시아에서의 상호 신뢰구축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OSCE를 모델로 설립된 지역안보협의체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옵서버로 활동하다가 2006년 6월 18번째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는 등 적극 참여해왔다. 금번 3차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UAE 및 요르단인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현재 총 20개국의 회원국이 활동하는 지역 안보협의체로 성장하였다.

● 제2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우리 정부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실질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12월 9일 제주도에서 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고위급 대표단(수석대표 : 각국 외교차관)을 초청, 제2차 한·중앙아 협력포럼(Second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을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에는 중앙아 5개국 외교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경제, 문화, 교육, 금융계 관련 인사 150여 명이 참가하여 중앙아 경제특구 활용 방안, 농업 및 문화·교육 분야 협력, 국제 무역·투자·금융 등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의 의제들에 대해 토의하였다. 포럼 결과로 각 의제별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의장요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포럼 개최 계기에 한국과 중앙아 5개국 외교차관 간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주요 협력 현안 및 한·중앙아 협력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2차 한·중앙아 협력포럼(2008.12.9, 제주)

금번 제2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지난 2007년 제1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개최 이후 1년 동안 한·중앙아 국가 간 정상 및 고위인사 교류 등 정부 차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조성된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를 민간 차원의 실질협력 분야로 확산시키는 데 유용한 계기가 되었다.